



[산업] 제네시스 GV60 얼굴로 문 잠금해제 이게 바로 미래형 車 06



Life

[라이프] 젊어진 삼성물산 패션 MZ업고 실적 활황 흑자전환



“입구서 세균 차단... 예방제로 감염병 없는 세상 만들고파”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김원희 셀바시온 대표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를 통해 들어와 비강(코 안) 섬모세포에서 자란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코 속에서 힘을 키운 바이러스는 비강 점막을 통해 폐 등으로 이동하며 인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입구에서부터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 ‘코빅실-V’를 개발한 셀바시온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코빅실-V는 코에 뿌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예방제다. 코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99.99% 없애,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화된 예방제로는 코빅실-V가 독보적이다. 코로나는 물론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걱정도 없다.

코빅실-V 개발에는 미국 국립 보건원(NIH) 산하 미국 국립 암 연구소(NCI)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그 연구 결과로 ‘어세이 캐스케이드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 수상자에게는 연구 개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모든 임상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김원희 셀바시온 대표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처럼 비강 스프레이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할 바란다”며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막는 예방제 전문 기업으로, 인류가 더이상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셀바시온은 스페인어로 ‘구원’을 뜻한다.



- 기업 소개를 부탁한다.

“서울 본사와 대전 연구단지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뉴저지에 자회사인 셀바시온USA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 연구진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미국 국책 연구기관들과 대학(와이오밍 대학, 뉴욕주립대 등)과 연계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세균 예방제인 코빅실-G와 바이러스 예방제인 코빅실-V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 코빅실-V의 원리는 뭔가.

“최근 규명된 바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는 ‘코’다.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손과 외부의 바이러스가 코에 닿아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코빅실-V를 코 안에 분사하면 얇은 필름 형태의 방어막을 형성해 6시간 이상 유지되며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다. 오랜 기간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돼 온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 매커니즘은 미국 와이오밍 대학 연구소에서 전자현미경을 통해 처음 촬영이 됐고, 관련 내용이 해외 유명저널인 네이처 자매지(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코에 뿌리는 바이러스 사멸 예방제 개발 코로나 등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에 적용 이달 초 美서 코빅실-V 120만개 첫 수출

셀바시온은 지난 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됐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 치료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던 국내외 연구진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의기투합해 출범한 법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전(戰)에 대비하고 있다.

- 코빅실의 개발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나.

“코빅실 주요 성분인 ‘ELAHE’는 오랜 기간 식품첨가물로 사용돼 온 안전한 물질이다. 코로나 발생 전부터 연구를 해오다가 지난 해 코로나 예방제로 발 빠르게 개발했다. 연구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연구진들이 모였고, 해외 유명 연구진들이 합류했다. 바이러스 분야 최고 전문가인 뉴욕주립대 의과대학의 샤코 박사가 임상 설계와 분석을 이끌었고, 치약 브랜드 ‘콜게이트’ 연구소장 출신으로 구강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압둘 가퍼 박사가 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 백신, 치료제와 비교할 때 코빅실-V가 갖는 장점은 뭔가.

“코빅실-V가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또 하나의 보완제로, 코 안을 방어하는 액체 마스크로 보는 게 맞다. 물리적인 마스크에



셀바시온이 개발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의 예방제 ‘코빅실-V’(왼쪽)와 ‘코빅실-G’. 여기서 V는 바이러스를, G는 세균을 뜻한다. /셀바시온

화학적 마스크가 덧입혀지는 셈이다. 백신은 2차 접종 후 효과가 떨어지고, 변이에도 취약하다. 유럽 사례를 보면 백신을 맞은 무증상 환자들이 늘어나며 오히려 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개발 전이지만,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암 발생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벌써 제기하고 있다. 가격이 고가인 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에 확진 될 경우 장기에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코빅실-V는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완제 역할 감염 예방하는 ‘화학적 마스크’ 내달, 국내 제품 허가 신청 예정

- 어느 국가에서 품목 허가를 받게되나.

“미국 식품의약품(FDA)에는 지난 6월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고, FDA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 의약품청(EMA)에도 CE 인증, 제품 등록등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중남미 12개국에 제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을 위해 해외에서 먼저 판매한 후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 수주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코빅실-V는 우선 백신의 혜택이 닿지 않고 비용 문제로 경구용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국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우리는 현재 제2의 코로나 사태를 가정해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코빅실은 코로나 외 각종 감기 및 호흡기 바이러스에서도 99%의 중화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물질을 활용해 의약품, 향균 화장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국내에선 언제쯤 사용할 수 있나.

“식약처 제품 허가를 위해서는 임상자료가 필요한데, 오는 12월중 임상 보고서 발표와 네이처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12월 중 제품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품 허가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 및 독성 자료들은 시험기관을 통해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는 제2의 코로나19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수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도 늘 상존한다. 감염병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 대표는 “사람들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처럼,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제 사용 등 생활습관 바뀌어 국내 바이오 시장·투자자 신뢰 부족해 연구과정 등 믿고 맡기는 환경 만들어야

- 셀바시온의 목표는 뭔가.

“늘 공급했다. 우리는 매일 칫솔질을 하고 손을 씻는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며 운동을 한다. 그런데 정작 세균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겨우 시작됐다.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으며, 인류는 아직 수많은 질병에 노출돼 있다.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다. 셀바시온은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예방제를 만들고 습관화 되도록 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고 그로 인한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 경영자로서 목표가 있다면.

“바이오 기업은 연구자 중심이지만 그 결과물을 제품화로 이끌 수 있는 경영자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은 아직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 First-in-class(혁신신약)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실패에는 너무 냉정하다. 가능성을 보지 않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꽂고 싶어 한다. 나는 코빅실의 연구 결과를 믿었고, 그래서 셀바시온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 한국에는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훌륭한 바이오 기업들이 많다. 그들이 성장하려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믿고 맡기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셀바시온도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일조하고 싶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손흥민, 유효슈팅 제로에도 에버턴전 최우수선수 선정 /사진 뉴시스
▲ 벤투호, 불안한 UAE 수비 ‘손’으로 흔들여 볼까

▲ 미국 매체 “김광현 예상 몸값, 2년 236억원...FA 전체 35위”
▲ ‘2차 칼바람’ 롯데, 강동호·한승혁·홍지훈 3명 방출



▲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경주서 12일부터 재개
▲ ‘최다 탈삼진 신기록’ 두산 미란다, KBO리그 10월 MVP /사진 뉴시스